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관계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고 예 진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관계

권정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 교육학과

고 예 진

# 인 준 서

고예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어머니가 느끼는 행복감과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및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1.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2.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8 곳에 재원중인 만 4, 5세 유아 135명과 그 어머니 1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어머니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 척도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육행동 질문지를,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아용 자기효능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행복감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

인들 가운데 ‘자립성’, ‘자녀의 바른 성장’, ‘건강’, ‘부모 및 친지와 관계’ 및 ‘배우자와의 사랑’의 순서로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온정·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이 가장 높게, 적극적 참여의 양육행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대상 유아들은 매우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및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가운데 어머니의 행복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행복감	8
1) 행복감의 개념	8
2) 행복감 관련 요인	10
2. 양육행동	13
1) 양육행동의 개념 및 유형	14
2) 양육행동 관련 요인	17
3. 자기효능감	20
1) 자기효능감의 개념	20
2) 자기효능감 관련 요인	22
4. 선행연구	25

<b>Ⅲ. 연구 방법</b> .....	32
1. 연구 대상 .....	32
2. 연구 도구 .....	33
3. 연구 절차 .....	38
4. 자료 분석 .....	40
<b>Ⅳ. 결과 및 해석</b> .....	41
1.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경향 .....	41
2.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	43
3.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48
<b>Ⅴ. 논의 및 결론</b> .....	50
1. 논의 .....	50
2. 결론 및 제언 .....	55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징
- <표 2> 연구대상 유아의 인구학적 특징
- <표 3> 어머니 행복감 측정도구의 하위 영역별 내용 및 문항구성과 신뢰도
- <표 4>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 영역별 개념 및 문항구성과 신뢰도
- <표 5> 유아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표 6> 어머니의 행복감 평균과 표준편차
- <표 7> 어머니의 양육행동 평균과 표준편차
- <표 8> 유아의 자기효능감 평균과 표준편차
- <표 9> 어머니 행복감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 <표 10> 어머니 행복감과 유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 <표 11>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 <표 12> 유아 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 행복감 및 양육행동의 중다회귀분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복감이란 행복을 느끼는 마음으로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마음의 평화, 충만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박숙경, 2002).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두며, 이는 행복추구권(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 10조)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급자족을 하던 시절에서부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자 기본 조건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물질적 만족을 뛰어넘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다시 말해 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에 이르게 되었으며, 행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행복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하게 되었다.

행복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Esterlin(1974)은 1946년부터 경제성장 수준이 다양한 30개 국가 국민들의 행복도를 연구하여 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의 연구결과는 국민복지를 위해 소득을 높인다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결론적으로는 국민복지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스털린의 역설(Esterlin Paradox)’이라는 용어로 발전하여 지금까지도 행복에 관련된 기사에 언급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그리고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성장보다 ‘국민의 행복도 증진’에 두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행복지수 조사계획을 발표하는 등(전병근, 2010) 행복

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인지 능력이나 창의성과 같은 능력을 학습하듯이 자신 내부에 있는 재능과 특성을 찾아내고 연습함으로써 개발 될 수 있는 기술(Argyle, 2005; Hoggard, 2005; Seligman, 2004)이라고 하였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노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러한 행복의 특성은 최근 긍정심리학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부분이 교육현장에서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 중요한 요인(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경민, 2010)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의 행복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행복감을 높게 지각 할수록 자녀들의 행복감 지수 또한 높게 나타나며(김도란, 김정원, 2008),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감(김민정, 2009)과 영아의 사회·정서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미,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부모의 행복감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행복은 물리적 요인, 심리·정서적인 요인과 타인과의 관계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행복에 관련된 요인들 가운데 가족관계의 요인을 고려할 때,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자녀와의 관계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복이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라는 점과 강한 정서를 유발하는 극적인 사건보다는 일상적인 생활 사건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Diener, Sandvik, & Pavot, 1991; 김도란, 2008 재인용)는 관점에서 볼 때, 전생애 중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고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나 자녀가 없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제반 환경 중 가정환경,

특히 부모-자녀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어머니의 행복감은 일상에서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되는 양육행동(박성연, 이숙, 1990)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양육행동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성별, 연령, 성격, 지적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출생순위, 자녀의 성별, 양육경험 등의 다양한 요인(Luster, 1985; 오지연, 2010 재인용)들은 위에서 설명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요인이기도 하며, 부모의 행복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양육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으로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효능감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다. 즉,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모-자녀 관계도 긍정적이며(Engfer, 1988),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성적 지도’나 ‘일관성 있는 규제’, ‘친밀감’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박성연, 1992)고 하는 등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1995; 노명희, 1991; 임희수, 1994; 전현진, 1999; 최기원, 2004; Belsky & Isabella, 1985; 박성연, 전현진 1999 재인용).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도현심, 김지신, 1997; 이민자, 2008; 이진선, 2006; 한지현, 2003). 그리고 이러한 부모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표현되는 부모효능감 또한 온정·격려나 한계설정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거부·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는 등(윤은미, 2004) 부모효능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2006).

한편,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태와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감소시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성혜, 1994; 김명희, 1998; 김선영, 2009; 김현미, 2006;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5; 유우영, 이숙, 1998; 정문자, 신숙재, 1998; Abidin, 1990; Belsky, 1984).

이처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결혼 만족도(김해영, 1995; 노명희, 1991; 임희수, 1994; 전현진, 1999; 최기원, 2004; Belsky & Isabella, 1985; 박성연, 전현진 1999 재인용)와 부모역할만족도(도현심, 김지신, 1997; 이민자, 2008; 이진선, 2006; 한지현, 2003)와 같이 어머니의 역할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는 변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거나, 심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조차도 어머니의 역할과정에 국한되는 부모효능감(김경미, 2006; 윤은미, 2004),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변인에 대한 연구(고성혜, 1994; 김명희, 1998; 김선영, 2004; 김현미, 도현심, 2004;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5; 신숙재, 1997; 유우영, 이숙, 1998)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현시대 어머니의 상황을 반영하거나, 어머니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또한 삶의 질과 그에 따라 느끼는 행복이 강조되는 현대 삶의 목표를 반영하기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유아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유아의 자기효능감 또한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어머니의 행복감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으로, 어떠한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99). 즉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요구된 행동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평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수행하고, 기술이나 수행의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의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선택이나 도전에 대한 지구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1982). 따라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유아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필요한 행동의 방향은 물론 그들이 사고하고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유지하는 커다란 동기로 작용한다(홍연란, 2009)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녀들과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들에게 자기효능감의 기초적인 정보원으로 작용하여,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있어 일차적인 모델이 되며(이숙, 우희정, 1994; Juang & Silbereisen, 2002), 격려나 칭찬과 같은 언어적인 설득을 통해 유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돕는다고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이에 따라 유아가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삶의 기초를 다지는 데 필요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김화정, 2009), 이 가운데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신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신념은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나는 부모의 자녀들에게서 높은 자기효능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숙, 2000; 신근화, 2009; 우희정, 1993; 이동영, 1997; 홍연란, 2009; 홍현숙, 2008).

이상에서 서술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 및 시사점,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유추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 및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자기효능감 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행복감과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유아의 자기효능감 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어머니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와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및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1.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2.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3.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용어의 정의

### 1) 행복감

행복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흐릿한 상태’(표준국어대사전, 1999)이다. 따라서 행복감이란 전반적인 삶에 대해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느끼는 만족감, 마음의 평화, 충만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박숙경, 2002)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은 긍정적 인생관이나 성취 및 자기수용과 같은 개인에 대한 주관적 만족요인,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와 같은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요인 그리고 사회, 정치, 문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요인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을 의미한다.

## 2) 양육 행동

양육행동은 부모 혹은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관성 있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Becker, 1964; 권수정, 2005 재인용). 본 연구에서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온정·합리적 지도’,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의 양육행동을 포함한다.

##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목표수준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대한 인간 개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기대감을 의미하며,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고 선택한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에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행복감

긍정 심리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증가하면서 행복감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김민정, 2009). 이에 따라 행복감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논의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행복감의 개념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릿한 상태(국립국어원, 1999)를 가리킨다. 따라서 행복감이란 이러한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나 느낌으로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마음의 평화, 충만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박숙경, 2002).

인간의 정신건강 구조는 긍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와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로 구성되는데(Veit & Weir, 1983; 정은선, 2008 재인용), 과거 심리학 연구 주제들은 주로 불안, 긴장, 분노,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긍정심리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존 심리학의 주제와 연구대상에서 벗어나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정신건강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신일식, 2010). 즉,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에 대해 만족감이나 평화로움을 느끼며, 행복해 질 수 있는가에 집중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손상, 결핍된 부분에 대한 치유를 강조하는 대신 인간이 지닌 강점을 이해하고 구축하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Seligman, 1999), 희망, 공감, 낙관성, 영성 등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Seligman, 2002; Snyder & Lopez, 2007).

심리학 분야에서 최초로 행복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실행한 Wilson(1967)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성별이나 지능과 상관없이 젊고, 건강하며, 좋은 교육을 받고, 소득이 높으며, 외향적이고 낙천적이며, 걱정이 없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한 사람이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직업 의욕이 높고 적당한 정도의 기대수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행복을 위에서 설명한 일부 객관적 지표나 외적인 조건의 시각에서 논하는 것은 인간 개인이 행복의 정도를 같은 조건에서 주관적으로 느낀다는 점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행복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주관적인 심리상태로 행복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게 되었다. Thomsen(1943)은 행복을 기대수준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는 만족감으로 보았으며, Kammen(1980)은 행복을 느끼는 것은 환경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객관적 기준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결과(정윤선, 1993에서 재인용)라고 하였다. 또 Freud는 행복은 개인이 대상(object)과 자기애적 리비도(narcissistic libido)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목적을 찾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으로서 그러한 만족이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두 개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다(Eidelberg, 1968: 김도란, 2008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따라서 행복이란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인 차원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정서 상태이며,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iener(1984)는 행복에 관한 정의를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으로 평가하여 주관적인 안녕, 즉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안녕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관적인 행복을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

다고 하였다.

첫째,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내적 경험을 의미한다. 객관적 조건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외적 조건 그 자체가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행복은 삶에 대한 부정적 요인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Bradburn, 1969: 신일식, 2010 재인용). 셋째, 행복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으로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근거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Shin & Johnson, 1978)’를 의미한다.

박영금(1978)은 행복은 마음의 내적인 상태로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상황은 대상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할 때 획득되며, 반면 아무리 만족감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욕구가 만족감 이상으로 클 때에는 획득될 수 없는 것이라 하였으며, 정윤선(1993)은 행복을 느끼는 것은 환경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 객관적 기준에 개인의 심리적 과정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주관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행복감이란 인간의 긍정적인 정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감정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관적인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행복(happiness)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논의되어 왔다(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2003).

## 2) 행복감 관련 요인

긍정심리학의 발달로 인간의 행복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인간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로 개인이 처한 객관적 조건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여기던 시절에는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수입, 주거 상태, 건강 등 삶의 경제적 측면과 신체적 조건만을 고려하였으나, 1960년대부터는 교육, 정치참여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김명소, 김혜원, 차명호, 2001), 이러한 변인들을 범주화해보면 크게 인성변수(personality variables), 삶의 영역에 대한 평가 변수, 사회 인구학적 변수로 정리할 수 있다(김도란, 2008).

첫째, 인성변수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요인으로 행복감이란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각한다는 점에 핵심이 있으며, 경제적 만족도나 결혼만족, 직업만족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건강이나 소득의 증가, 혹은 교육수준과 같은 객관적이고 단일한 지표들뿐만 아니라 성격과 적응 등 심리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Diener, 2000), Heady와 Wearing(1992)는 주관적 안녕감이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심리적 속성과 좀 더 연계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김민정, 2009 재인용). 또한 행복감의 구성 요인 중에서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는 인간의 인성변수들(personality variables) 가운데 외향성(extroversion), 타인에 대한 관심(interest in other people), 적극적인 사회참여(active social involvement), 낙관주의(optimism), 그리고 자존감(self-esteem)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는 신경질적 성향(neuroticism)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osta & McCrae, 1980; Emmons & Diener, 1985; Heady, Holstrom, & Wearing 1984; Kammann, Farry, Herbison, 1984; 김도란, 200 재인용).

둘째, 삶의 영역에 대한 평가 변수에는 가족, 직장, 지역사회, 정부 등의 사회적 환경이 속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Ryff와 Lyes(1995)는 학벌지향주의, 취업, 진급 등에서의 연령제한 기준, 성별에 따

른 불평등한 사회적 기회제공 등의 요인은 개인의 행복과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한 반면, Diener, Suh, Lucas와 Smith(1999)는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행복에 끼치는 영향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나 연령대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김민정, 2009 재인용).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위의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건강, 경제소득, 교육수준, 결혼여부, 성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들은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Andrew & Withey, 1976; Michalos, 1985; Veenhoven, 1984), 이것이 개인의 행복감이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과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성적이고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덜 심각한 상태는 행복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경제적 풍요로움은 개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이연숙, 이순형, 류가효, 조재순, 1991), 대부분의 경우 학력수준이나 다른 변인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직업은 행복감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역시 다른 변인의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으며, 결혼여부는 성별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나타나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 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낌을 알 수 있으며(Diener, Gohm, Suh & Oishi, 2000).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도란, 2008;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차경호, 1999). 그 밖에 종교, 지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김도란, 2008).

행복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인해 여러 견해가 제시되면서, Lyubomirsky와 Lepper(1999)는 삶의 질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연구를 실시하였다. 기존연구의 삶의 질에 대한 변인들을 개인, 가족, 사회, 환경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관련이 높은 영역은 개인적 차원이었으며, 개인적 차원의 요인들 중 경제력, 활동수준, 적응 수준, 생활사건, 개인 성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복감 구성 요인에 대한 연구(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에서는 경제력,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성장, 자립성, 사회·정치·문화·환경, 종교, 이타심,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와의 사랑, 대인관계, 외모, 긍정적인 인생관, 건강의 16개 하위요인이 한국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이타심이나 자녀, 부모친지, 대인관계 요인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한국인 특유의 집단주의적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도란, 2008).

이처럼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특성의 변인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객관적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개인을 둘러싼 대인관계 및 사회적 체계와 특정문화에서 강조되는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또한 반영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차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양육행동

기본적으로 유아의 발달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으며, 부모는 자녀의 물리적 성장에서부터 사회·정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환경이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으며, 특히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구명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하였다(이민영, 2010). 과거 연구들을 통해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논의되어온 양육행동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양육행동의 개념 및 유형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인적, 물리적, 심리적 제반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유아기를 논할 때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행동 양상은 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서 배우게 되며, 특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광범위하고 밀접한 양육행동의 특질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박성연, 이숙, 1990). 또한 양육행동은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유아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ecker, 1964; 권수정, 2005 재인용)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양육행동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shbein과 Ajzen(1975)은 양육행동이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하였다. 이원영(1983)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 정의하였으며, 서동미(1996)와 권준희(1998)는 유아에 대해 부모가 나타내는 반응양식은 개인 또는 그 사회마다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일정한 문화양식의 범주 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르치는 태도 또는 행동의 경향성과 반응양식을 양육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유아교육학회(1996)의 유아교육사전에서는 양육행동을 양육자가 어린이에 대해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며, 김재희와 박경란(1998)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방식으로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어린이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를 양육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이숙(1998)은 부모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나는 모든 행동을 양육행동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양육 태도는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양육행동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며, 대개는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을 특별히 구별하

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박성연·이숙, 1990),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 유아를 대할 때 태도는 행동에 반영되므로 양육 태도보다는 양육행동의 개념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이민영, 2010).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육행동은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모든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양육행동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Symonds(1939)는 양육태도를 수용-거부적(Acceptance-Rejection),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의 두 개의 요인 측에 의해 반대되는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수용적 유형의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자녀를 보호하려 하며, 거부적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거부하고 무관심, 적대감정 표출, 별주기, 혹은 조건을 붙여 애정을 주는 행동을 보인다. 지배적 유형의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복종적 유형의 부모는 맹목적이고 과보호적이며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고 그에 따른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오지연, 2010).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대 차원, 자율-통제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애정적-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애정적이며 동시에 자율을 허용하는 양육행동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민주적, 허용적, 자유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애정적-통제적 양육행동은 과잉보호형의 양육행동으로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의존성을 조장하고, 과보호적이며 소유적인 태도를 보인다. 거부적-자율적 양육행동은 방임형 양육행동으로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것으로 거리감 조성, 무관심, 소홀, 냉담한 성격의 태도를 갖는다. 거부적-통제적 양육행동은 독재적인 양육행동으로서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체벌 또는 심리적 체벌을 하는 것으로서 권위적, 독재적, 요구

반복적,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추미란, 1998).

Baumrind(1973)의 권위적 유형(authoritarian), 민주적 유형(authoritative), 허용적 유형(permissive)의 양육행동 유형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설명하고, 아동 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기초가 되었다. 권위적 유형(authoritarian)이란 아동에게 매우 엄격하고 부모의 지시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말하고, 민주적 유형(authoritative)이란 아동에 대해 따뜻하고 관심을 가지며 적절히 통제하고 규칙에 대해 엄격하나 합리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제한을 하는 양육행동을 말한다. 허용적 유형(permissive)이란 비교적 따뜻하지만 부모가 아동에게 따르도록 요구하는 일이 거의 없고, 통제도 하지 않으며 아동의 행동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는 유형을 말한다.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많은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관하여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BI: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개발하였는데, 부모의 태도와 행동은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혹은 통제(control)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돌봄에서의 높은 점수는 정서적 따뜻함과 공감을 반영하고 낮은 점수는 정서적 냉정함과 무관심을 반영한다. 또 높은 점수의 과보호는 통제와 의존심을 키우는 양육태도를 반영하며, 낮은 점수는 독립심과 자율성을 키워주는 양육태도를 반영한다.

국내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연구에 외국의 측정도구가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양육행동에는 그 가족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Kagan, 1971; 김재은, 1974)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한 검사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박성연, 1989), 우리나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척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양육행동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원영(1983)은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를 번안·수정하여 양육행동을 애정, 거부, 어머니의 외향적 특성, 의존

성 조장, 통제, 긍정적 평가, 독립심의 7개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오성심과 이종승(1987)은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숙(1988)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두 요인은 온정, 거부-권위주의적 통제이며, 이 두 가지 요인은 단일차원의 모습이 아닌 독립적인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성연과 이숙(1990)은 양육행동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7개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박영애(1995)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는 아동에 대한 애정 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아동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 지도의 합리성 그리고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 등의 행동을 포함되고,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에는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 표현, 적대적, 감정적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그리고 침해적 개입 등의 행위들이 포함되며,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는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굴복형 허용과 무책임·무관심형 방임의 행동들이 포함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개념들은 양육 차원과 유형을 구성하는 요인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 애정의 정도, 통제의 정도,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전향미, 2009).

## 2) 양육행동 관련 요인

Watson(1957)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족구성이나 가정의 분위기, 경제적 수

준, 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과 전생애적 관점(life span perspective)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이 지지되고 있다(Luster & Kain, 1987). 이러한 양육행동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Sears, Maccoby와 Levin(1957)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중, 상류층의 어머니보다 하류층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제한적, 냉담적,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정선희, 2001에서 재인용). 또한 Brody(1968)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사회 계층별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관찰한 결과, 중류층의 부모는 감정적으로 따뜻한 양육법을 사용하고 상벌보다는 자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만족을 얻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하류층의 부모는 상벌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Water와 Crandall(1964)은 가정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강제적이고 제한적인 규칙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으며, Schaefer와 Baley(1967)는 중류층 어머니들은 자녀의 요구와 충동에 관대한 반면 하류층 부모는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덜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임희수, 1994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향은 국내연구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원영(1983), 이혜영(1985), 신태창(1985)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자율성을 더 많이 주는 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이정희(1986)와 이숙(1988)은 중류층 가정의 어머니일수록 하류층 가정에 비해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민주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을 들 수 있는데, Schaefer와 Baley(196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게 협동적이며 자율성을 더 많이 주고 자녀와 동등한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urlock(1973)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낮은 부모보다 권위적이지 않으며 통제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임희수, 1994에서 재인용). 이원영(1983)은 교육 정도가 낮은 어머니들은 거부 및 통제의 정도가 심하며, 의존성을 조장하여 자녀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교육 정도가 높은 어머니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부, 통제, 의존성 조장의 정도가 낮고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중혜(1980)과 양문현(1984)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양정선(1997)의 연구에서는 고졸 이상 어머니의 자녀들이 중졸 이하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합리적 지도, 애정, 적극적인 참여의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Hess와 Shipman(1967)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자율성을 더 많이 주고 협동적이며 아동의 요구를 더 잘 분별하고 자녀와 동등한 관계를 누리며, 반면 낮은 수준의 어머니들은 보다 통제적이고 체벌을 많이 하며,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해영, 1995에서 재인용).

어머니의 취업유무 또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수남(1980)은 취업모의 양육 행동은 지배적이며,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은 거부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으며, 함미영(1992)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외향적인 양육행동을 하며, 자녀들 또한 비취업모의 자녀들이 취업모의 자녀들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연, 전현진(1999)의 연구는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임을 밝히고 있는데, 어린시절 독립성이 조장되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하고 자기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면 온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은 적게 하며, 인성은 아버지에게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양육행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직업유무, 아동기 경험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자기효능감

Bandura에 의해 처음 제안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론은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관련 변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의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정의된다(Bandura, 1977). 즉, 주어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갖는 인지적 자원이나 동기 혹은 다양한 행동과정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신념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분명치 않고 예측할 수 없는데다 나아가 긴장감이 높은 미래 상황에 대처하는데 요구되는 행동 과정을 인간 개인이 어떻게 잘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력과 관련되어 있다.

우희정(1993)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능력에 대한 기대이므로 능력에 대한 지각보다 행동변화에 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행동도 변하기 때문이다.

Schunk(1981)는 긴장을 주는 요소가 포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활

동을 얼마나 잘 수행해낼 수 있는가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하였으며, Wood와 Locke(1987)는 자기효능감을 과제 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자기 능력을 개인적으로 측정(estimate)한 것이라 하였다.

김남성(1985)은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행동을 능히 해 낼 수 있다고 기대할 때, 행동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개인의 기대감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기대되는 성취의 순간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이란 용어 외에 자기효능기대(Self-efficacy expectancy), 지각된 자기효능감(perceived self-efficacy) 혹은 자기효능감 신념(Self-efficacy beliefs)등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개념들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개념을 의미하며,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을 해석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된다(전인옥, 1996). 또 허경철(1991)은 자기효능감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한, 능력 있는, 효능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와 같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Bandura(1977, 1982)는 자기효능감에는 수준(level), 강도(strength), 일반성(generality)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의 수준(level)이란 주어진 과제나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얼마나 어렵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자기효능감의 강도(strength)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의 일반성은 특정 상황이나 과제에서 자기효능감을 어느 정도 범위의 상황이나 대상에 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이혜경, 2009 재인용). 전인옥(1996)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단일개념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수준, 강도, 일반성

이 세 가지 차원이 포괄된 개념으로 시간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역동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목표수준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대한 인간 개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나 기대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로 그 역할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신근화, 2009).

## 2) 자기효능감 관련 요인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과 같은 네 가지 정보원을 토대로 직·간접적인 성과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형성·변화해 간다(Bandura, 1977; 신근화, 2002에서 재인용)고 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 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은 인간이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판단에 기초한 정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원이다. 또한 성공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강한 신념을 형성하며,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성공 경험은 단지 대리적인 경험이나 인지적 시뮬레이션, 또는 언어적 지시에만 의존하는 양식들보다 더욱 강력하고 일반화된 효능감을 향상시키거나 반복된 실패는 효능감을 저하시킨다(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둘째,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은 과제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나 이미지에 따라서 자기효능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성공적인 행동을 하는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타인의 성공적인 성취를 보거나 상상함으로써 자신도 그

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과 비슷하게 노력을 하는 타인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감이 감소하고 성취에 대한 의욕도 감소하게 된다(최미향, 2002).

셋째,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이란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여 주는 것으로 적절한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보원이며, 교사나 부모, 동료 등에 의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실질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수단에만 의존하는 까닭에 성공에 대한 기대정도는 직접 경험이나 대리 경험보다 약하다. 언어적 설득의 방법으로는 암시나 권고 등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나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방향을 설명하고 스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게 하는 해설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부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자라는 아동들은 무엇보다 부모의 언어적 설득이 자기효능감의 정보원으로 작용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칭찬과 격려를 충분히 하는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들과 주기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고 아동의 성공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지속적인 칭찬과 격려를 제공해야 한다(이혜경, 2009: 최미향, 2002).

넷째,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이란 불안하고 억압적이거나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흥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서적 각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정서적 각성은 기대적인 자기평가를 통해 한층 더 큰 불안을 일으키고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실제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보다 더욱 강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 보다 안정되어 있을 때, 성공을 기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우희정, 1992). 인간은 동기부여에 의해 행동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서적 각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해서도 행동하는 만큼, 정서적 각성은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신근화, 2002; 최미향, 2002).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자기효능감의 정보원은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과정을 통해 처리되고 변형되어 영향을 미친다(우희정, 1992).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습관의 표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그 표준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기만족적이거나 자기 비평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Bandura, 1977: 우희정, 1992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기효능감 판단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가늠하고 결합하는 추론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Bandura, 1982).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추구하는 행위의 방향 뿐 아니라 그의 사고유형 및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심리적·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희정, 1992).

먼저 심리적·내적요인에는 보상, 귀인 피드백, 사회적 비교, 목표설정이 있다. 첫째, 보상이란 과제성취에 관련된 보상을 의미하는 데, 보상의 유무와 보상의 양에 따라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귀인이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 지각을 의미하는데, 귀인 이론에 따르면(Weiner, 1980: 우희정, 1992에서 재인용) 자신의 수행 결과는 능력, 과업 난이도, 노력, 운 등의 네 가지 원인에 귀인하며, 적절한 귀인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비교란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비교하는 과정(Festinger, 1954)을 의미하는데, 부적절한 대상과의 비교는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회적 비교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목표설정이란 현재의 수행을 목표에 비추어 비교하는 과정(Bandura, 1977)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경험하는 자기만족에서 자기유인을 창출하고 그 결과 노력을 지속하게 되며, 인내를 증가시키고 전략발전을 동기화하여 수

행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사회 환경을 들 수 있는데, 가정 환경에는 부모-자녀 관계 및 형제관계가 포함되며, 유아기 아동을 대상의 환경을 설명함에 있어 학교 환경과 사회 환경에는 유아교육기관,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등이 포함된다.

#### 4. 선행연구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개별 변인 또는 각 변인간의 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의 행복감에 대해 자녀의 변인과 연결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명섭(1990)은 초등 5, 6학년 을 대상으로 부모의 행복도 수준과 자녀의 정의적 행동발달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부모의 행복도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의 아동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영희(1995) 또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행복감은 건전한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영옥(1996)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행복도 수준과 자녀의 자아정체감을 연구한 결과 부모의 행복도와 자아정체감의 하위 변인 가운데 독특성과 자기주장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도란(2008)은 부모가 지각하는 행복감과 유아가 지각한 행복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행복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유아들 역시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행복감을 연구한 권영주(2008) 또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박영희(2008)는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일상적인 행복의 경험을 연구한 결과 가정, 직장, 여가의 일상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경험은 가정에서의 행복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의 구체적인 행복경험은 자녀양육에서의 보람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행복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 대한 이옥경(2008)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행복도와 자녀의 정서지능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부모의 행복도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들의 정서지능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민정(2009)는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성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가 행복감을 많이 느낄수록 유아와의 애착안정성과 또래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유미(2010)는 만 1, 2세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행복감과 영아의 사회·정서 능력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행복감과 영아의 사회·정서 능력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느끼는 행복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부정적 사회·정서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민지(2010)는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의존성 또는 심리적 유대를 나타내는 가족의 응집성이 높다고 지각 할수록 자신 자녀의 유능감을 다른 아동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해 행복감을 더 높게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앞서 행복감과 동질개념으로 설명한 삶의 만족감에 대한 박서영(2007)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 삶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설명적 양육행동과 자율성 촉진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동시에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사회적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 부모의 행복감과 자녀의 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

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근접(proximal) 또는 장기적(distal)인 선행변인(antecedent)들을 개념화한 Belsky(1984)의 양육행동 과정모델(Process model)에 의하면, 부모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3가지 차원이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모의 양육행동이 결정된다. 즉 양육행동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또는 가까운 요인이라 할 수 없는 부모의 발달사나 인성과 같은 부모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녀의 기질과 같은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결혼만족도나 대인관계,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박서영, 2007).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힘입어 최근 들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발달적인 누적효과나 매개 또는 중재 효과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Luster & Okagaki, 1993).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부부관계,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행복감을 설명하는 부분적인 요인이기도 하며, 따라서 행복감과 양육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행복감에 반하는 부정적 정서라 할 수 있는 우울감, 스트레스, 그리고 행복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머니의 정서 상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한 우울한 정서의 부모들은 덜 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었다(Belsky & Pensky, 1990: 박서영, 2007에서 재인용). 즉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긍정적 심리 상태의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있어 더욱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ettles(1988)는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는 영아의 용알이에 늦게 반응하는 등 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덜 적절한 상호작용

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서영, 2007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스트레스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이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서 느끼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현미, 2006). 양육스트레스는 가족구성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발달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가족 체계내의 긴장과 압력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한 정도나 부담을 의미하며,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는 정서로 정의된다(고성혜, 1994; 안지영, 2001).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은 자녀의 행동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 행동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와 거부적 양육행동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기질보다는 양육스트레스가 거부·권위주의적 양육 행동을 보다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감소시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져(박응임, 1995),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이 나타나며,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희, 1998; 김선영, 2004; 김현미, 2006; 박성연, Kenneth, 2008; 신숙재, 1997; 유우영, 이숙, 1998; 이현주, 1999; Abidin, 1990; Belsky & Isabella, 1985).

마지막으로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들 가운데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배우자와의 사랑’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변인으로 결혼 생활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유영주, 1981)를 측정한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희수(1994)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독

립성의 격려’, ‘아동으로 인한 즐거움’, ‘애정표현’, ‘경험에 대한 개방성’, ‘합리적인 지도’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부정적인 감정표현’, ‘비일관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덜 나타났다. 또 자녀의 성, 자녀의 기질, 사회계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의 변인들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행동 범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연(1992)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결혼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에게서 ‘이성적 지도’, ‘일관성 있는 규제’, ‘친밀감’의 양육행동이 더욱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이외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에 관련된 연구들 또한 전체적으로 결혼만족도는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김해영, 1995; 노명희, 1991; 안명은, 2007; 전현진, 1999; 최기원, 2004)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행복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결혼만족도 및 행복감에 반하는 부정적 정서라 할 수 있는 우울감,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우울감, 스트레스 모두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부모의 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ndura(1977)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의 네 가지 정보원을 기초로 직·간접적인 성패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원은 인간에게 있어 일차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의 구성원과의 접촉을 통해 전달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유아들은 생애 최초로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래 기간 많은 접촉을 하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는 아동의 일차적 모델로 작용하여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계가 있으며(Bandura, 1977), 공

인숙(1989)은 낮은 온정과 권위적인 양육 행동을 많이 하는 어머니의 유아들보다 적절한 애정과 통제로 구성된 민주적 양육 행동을 많이 하는 어머니의 유아들에게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우희정(1993)은 남아 여아 모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바람직할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를 통해 성공 경험을 많이 한 아동은 자기효능감도 강할 것이며, 주위 사람들의 평가나 설득에 의해서도 자기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윤병두(1995)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부모의 자기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포함하는 등 부모 관련 변인과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수용적·자율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동영(1997)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자율로 지각하는 아동들이 비성취, 타율로 지각하는 아동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취감을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자라고 있음을 아동 자신이 지각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며,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해주면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문혁준(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즉 수용-적대, 자율-통제, 애정-방임, 성취-비성취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귀인, 과제 난이도 선호 간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숙(1989)의 연구에서는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균형 잡힌 민주적 양육 유형이 온정이 낮고 통제가 강한 권위적 양육 유형에 비해 높은 자기 역량감

을 초래한다고 하였으며, 김순옥(2008)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높은 자기 효능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홍현숙(2008)은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개방, 자율, 친애적이라고 지각 할수록 지적, 사회 정서적, 신체적 영역의 효능감이 높으며 비성취, 폐쇄, 통제, 거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은 낮게 나타났으며, 신근화(2009)의 연구에서도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많이 나타나는 어머니의 유아들이 자기효능감 전체 점수 및 모든 하위요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 선행연구들(김민정, 2003; 노순점, 2005; 노호은, 2001; 박기종, 2000; 진은영, 2001)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높은 자기효능감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부모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행복감은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이 두 변인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설명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K구와 경기도 Y시 소재의 어린이집 8개소를 임의 표집한 후 원장님과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K구와 경기도 Y시에 소재한 8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4-5세 유아 135명과 어머니 135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징(N=135)

	구 분	n	%
모 연령	30세 이하	6	4.4
	31세 ~ 35세	49	36.3
	36세 ~ 40세	65	48.2
	41세 이상	15	11.1
모 학력	고졸	44	32.6
	전문대졸	27	20.0
	대졸	64	47.4
거주 지역	서울	79	58.5
	경기	56	41.5
취업 여부	취업모	72	53.3
	비 취업모	63	46.7
합 계		135	100.0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31-35세가 36.3%, 41세 이상은 11.1%, 30세 이하는 4.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자가 4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졸자 32.6%, 전문대졸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3.3%이고, 전업주부인 경우는 46.7%로 본 연구대상 유아의 어머니는 취업 모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은 만 5세가 65.2%, 만 4세가 34.8%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51.9%, 여아는 48.1%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유아의 인구학적 특징 (N=135)

구분	n	%
형제 수	0명	17.8
	1명	66.7
	2명 이상	15.5
연령	만 4세	34.8
	만 5세	65.2
성별	남자	51.9
	여자	48.1
합계	135	100.0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

와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행복감 측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유아의 어머니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2003)이 제작한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형태의 질문지로 16개의 각 하위영역(경제력,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사회, 정치, 문화 환경, 종교, 이타심,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 및 친지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사랑, 대인관계, 외모, 긍정적 인생관, 및 건강) 별로 3개의 문항씩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평점 척도를 사용하여 48점에서 192점 사이에 분포하며, 높은 점수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행복감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의 하위 영역별 내용 및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으며, 행복감 질문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rase, Clark와 Pease(1978)의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IPBI: Mother Form)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손승희(2002)의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3> 어머니 행복감 측정도구의 하위 영역별 내용 및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 영역	내 용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경제력	금전적 여유와 경쟁력이 있는 정도	1~3	.86
성취 및 자기수용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성취감	4~6	.84
여가	일상을 벗어난 문화생활 및 레저활동 참여 정도	7~9	.71
사회적 지위 및 인정	타인으로부터 현재의 자신의 지위, 학력 등에 대한 인정받고 있는 정도	10~12	.77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미래의 자신의 꿈, 비전 및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13~15	.87
자립성	자신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자립성을 가지고 하는 정도	16~18	.89
사회, 정치, 문화 환경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현 사회의 제반 환경적 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19~21	.73
종교	종교 활동에 참여하며,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정도	22~24	.85
이타심	타인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정도	25~27	.53
자녀의 바른 성장	자녀가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자라는 정도	28~30	.57
부모 및 친지 간의 관계	부모님, 형제 및 일가 친척과 화목하게 지내는 정도	31~33	.68
배우자와의 사랑	배우자와 서로 신뢰·존중하며, 배려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34~36	.84
대인관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위에 친밀감을 느끼는 타인이 있는 정도	37~39	.87
외모	신체적 외모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40~42	.83
긍정적 인생관	삶을 살아가는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처한 곤경이나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43~45	.49
건강	건강에 자신 있어 하는 정도	46~48	.61
<b>전 체</b>			<b>.86</b>

<표 4>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 영역별 개념 및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개념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온정·합리적 지도 (14문항)	자녀가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자녀의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는 양육행동	4, 7, 10, 13, 14, 15, 19, 22, 23, 24, 25, 27, 30, 31	.82
반응성 (6문항)	어머니 자신의 일을 중단하면서도 자녀가 요구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는 행동으로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행동	1, 2, 17, 18, 20, 21	.79
한계설정 (7문항)	자녀의 생활에 일관성 있게 제한을 정해주고 자녀가 그 제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육행동	5, 8, 9, 11, 12, 16, 28	.65
적극적 참여 (4문항)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육행동으로서 자녀가 할 수 있는 놀이를 제안해 주고 함께 놀이를 하며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자녀가 도움을 청하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행동	3, 6, 26, 29	.67
전체 (31문항)			.87

본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온정·합리적 지도(intimacy·reasoning guidance), 반응성(responsiveness), 한계설정(limit setting), 적극적 참여 (parental

involvement)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 수와 가능한 점수의 범위를 살펴보면 온정·합리적 지도는 14문항으로 14~56점, 한계설정은 7문항으로 7~28점, 반응성은 6문항으로 6~24점, 적극적 참여는 4문항으로 4~16점이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해당 영역의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의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 영역별 개념 및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위의 표 4와 같으며, 양육행동 질문지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 3) 유아의 자기효능감

유아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Young Children’s Self-Efficacy Scale: YCSES)는 전인옥(1996)의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를 수정·보완한 최미향(2003)의 도구를 ‘거의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단계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검사는 연구대상 유아와 검사자가 직접 1대 1로 면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는 인지적 영역, 신체적 영역 및 사회·정서적 영역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문항수를 살펴보면, 인지적 영역 9문항, 신체적 영역 7문항, 사회·정서적 영역은 9문항으로 모두 25문항이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5 ~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9,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계수는 인지적 효능감이 .84, 사회·정서적 효능감이 .68, 신체적 효능감이 .67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의 표 5와 같으며, 질문지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표 5> 유아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문항 수	Cronbach's $\alpha$
인지적 영역	1, 2, 4, 6, 10, 11, 13, 21, 25	9문항	.84
신체적 영역	5, 8, 14, 17, 18, 20, 22	7문항	.68
사회·정서적 영역	3, 7, 9, 12, 15, 16, 19, 23, 24	9문항	.67
전체		25문항	.89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의 선정, 자료수집의 가능성, 연구도구의 타당성 검증, 검사 실행 소요시간 및 설문지 회수기간 등 본 연구의 수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대상이 아닌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만 4세 10명(남아 5명, 여아 5명), 만 5세 10명(남아 5명, 여아 5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유아용 자기효능감 검사의 소요시간은 유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대략 8~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어머니용 행복감과 양육행동 검사의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내용의 적절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아용 자기효능감 도구의 예비조사 과정에서 긍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Likert식 본

척도의 답변 외에 21% 비율로 부정의 답변이 관찰되었으며, 보통/중간의 답변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척도의 유아용 자기효능감 도구의 ‘아주 조금(1점)’, ‘약간 조금(2점)’, ‘보통/중간(3점)’, ‘약간 많이(4점)’, ‘아주 많이(5점)’ Likert식 척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를 위해 어머니용 질문지인 행복감과 양육행동 측정도구를 유아의 자기효능감 도구와 동일한 Likert식 4점 척도로 재조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 유아가 만 4~5세인 점을 고려하여 유아들의 용이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적색과 청색의 동그라미를 각각 크고 작은 크기로 준비하여 유아들이 직접 손으로 짚어 응답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0년 8월 9일부터 9월 27일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어머니용 질문지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연구 대상 유아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된 후 회수하였으며, 회수 시 담임교사가 유아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효능감 검사는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이용하여 교실과 분리된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 유아와 1:1로 면접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총 배부된 210부의 어머니용 질문지 가운데 회수된 135부(64.3%) 어머니용 질문지와 그들의 자녀의 자기효능감 검사 결과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어머니와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VI.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경향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어머니의 행복감 평균과 표준편차(N=135)

하위요인	합 계	
	M	SD
경제력	2.60	.51
성취 및 자기수용	2.54	.47
여가	2.16	.53
사회적 지위 및 인정	2.31	.54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2.60	.67
자립성	3.08	.51
사회·정치·문화·환경	2.06	.49
종교	2.50	.83
이타심	2.44	.57
자녀의 바른 성장	3.01	.40
부모 및 친지간의 관계	2.95	.39
배우자와의 사랑	2.90	.62
대인관계	2.74	.57
외모	2.55	.55
긍정적 인생관	2.78	.59
건강	2.97	.52
행복감 전 체	2.62	.24

어머니의 행복감의 평균은 2.62( $SD=.24$ )로 나타나, 전체 응답범위 1점~4점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높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감의 16개의 하위 요인 가운데, ‘자립성’의 평균이 3.08( $SD=.5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바른 성장’의 평균이 3.01( $SD=.40$ ), ‘건강’의 평균이 2.97( $SD=.52$ ), ‘부모 및 친지간의 관계’의 평균이 2.95( $SD=.39$ ), ‘배우자와의 사랑’의 평균이 2.90( $SD=.62$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행복감의 하위 요인 가운데 ‘사회·정치·문화·환경’의 평균이 2.06( $SD=.49$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가’의 평균이 2.16( $SD=.53$ )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어머니의 양육행동 평균과 표준편차( $N=135$ )

하위요인	합 계	
	<i>M</i>	<i>SD</i>
온정·합리적 지도	3.18	.30
반응성	3.25	.40
한계설정	3.00	.35
적극적 참여	2.71	.45
양육행동 전체	3.04	.27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반응성’은 평균 3.25( $SD=.40$ ), ‘온정·합리적 지도’는 평균 3.18( $SD=.30$ ), ‘한계설정’은 평균 3.00( $SD=.35$ )의 순서로 나타났고, ‘적극적 참여’의 평균은 2.71( $SD=.45$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유아의 자기효능감 평균과 표준편차 (N=135)

하위요인	합 계	
	<i>M</i>	<i>SD</i>
인지적 영역	3.47	.53
신체적 영역	3.46	.50
사회·정서적 영역	3.64	.35
자기 효능감 전체	3.53	.41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3.53( $SD=.41$ )이었다. 이는 전체 응답범위 1~4점을 기준으로 볼 때, 연구대상 유아들은 매우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사회·정서적 영역’은 평균 3.64( $SD=.35$ ), ‘인지적 영역’은 평균 3.47( $SD=.53$ ), ‘신체적 영역’은 평균 3.46( $SD=.50$ )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각 하위요인 평균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2.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 1)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어머니 행복감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행복감	양육행동	온정합리적 지도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	총 점
경제력		-.01	.10	.13	.26**	.12
성취 및 자기수용		.10	-.04	.34**	.32**	.21*
여가		.11	-.15	.16	.48**	.17
사회적 지위 및 인정		.11	-.15	.21*	.27**	.13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16	-.22*	.20*	.27**	.13
자립성		.34**	.16	.37**	.36**	.41**
사회, 정치, 문화 환경		-.06	-.19*	.27**	.33**	.07
종교		.11	.14	.036	.08	.12
이타심		.03	.09	-.01	.18*	.08
자녀의 바른 성장		.20*	.28**	-.01	-.13	.15
부모 및 친지간의 관계		.24**	-.03	.50**	.26**	.32**
배우자와의 사랑		.22**	.21*	.20*	.11	.26**
대인관계		.34**	.10	.25**	.17	.31**
외모		.34**	.18*	.27**	.16	.34**
긍정적 인생관		.04	.13	.05	-.02	.07
건강		.30**	.04	.08	.10	.21*
총 점		.36**	.08	.41**	.45**	.43**

\* $p < .05$ , \*\* $p < .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행복감 총점과 양육행동 총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43, p<.01$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감 총점과 양육행동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참여( $r=.45, p<.01$ ), 한계설정( $r=.41, p<.01$ ), 온정·합리적 지도( $r=$

.36,  $p < .01$ )의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응성 요인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가 행복감을 느낄수록 적극적 참여, 한계설정, 온정·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감의 하위요인과 양육행동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립성( $r = .41, p < .01$ ), 외모( $r = .34, p < .01$ ), 부모 및 친지간의 관계( $r = .32, p < .01$ ), 대인관계( $r = .31, p < .01$ ), 배우자와의 사랑( $r = .26, p < .01$ ), 성취 및 자기수용( $r = .21, p < .05$ ), 건강( $r = .21, p < .05$ )의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행복감 총점과 자녀의 자기효능감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 = .50, p < .01$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행복감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가 행복감을 느낄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감 총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인지적 영역( $r = .51, p < .01$ ), 신체적 영역( $r = .46, p < .01$ ), 사회·정서적 영역( $r = .34, p < .01$ )의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행복감을 느낄수록 유아의 인지적 영역, 신체적 영역 및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어머니 행복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행복감	자기효능감	인지적 영역	신체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총 점
경제력		.20*	.21*	.12	.20*
성취 및 자기수용		.45**	.43**	.36**	.46**
여가		.19*	.20*	.10	.19*
사회적 지위 및 인정		.36**	.34**	.24**	.36**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36**	.19*	.22**	.30**
자립성		.49**	.38**	.23**	.43**
사회, 정치, 문화 환경		.24**	.18*	.19*	.23**
종교		.11	.13	.02	.10
이타심		-.05	.11	.13	.05
자녀의 바른 성장		.09	-.04	-.09	.00
부모 및 친지간의 관계		.28**	.23**	.14	.25**
배우자와의 사랑		.16	.14	.09	.15
대인관계		.33**	.31**	.21*	.32**
외모		.27**	.22*	.20*	.26**
긍정적 인생관		-.26**	-.23**	-.12	-.23**
건강		.33**	.40**	.30**	.38**
총 점		.51**	.46**	.34**	.50**

\*  $p < .05$ , \*\*  $p < .01$

어머니의 행복감 하위 요인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총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행복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어머니의 성취 및 자기수용( $r=.46$ ,  $p<.01$ ), 자립성( $r=.43$ ,  $p<.01$ ), 건강( $r=.38$ ,  $p<.01$ ), 사회적 지위 및 인정( $r=.36$ ,  $p<.01$ ), 대인관계( $r=.32$ ,  $p<.01$ ),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r=.30$ ,  $p<.01$ ), 외모( $r=.26$ ,  $p<.01$ ), 부모 및 친지간의 관계( $r=.25$ ,  $p<.01$ ), 사회, 정치, 문화

환경( $r=.23, p<.01$ ), 경제력( $r=.20, p<.01$ ), 여가( $r=.19, p<.01$ )의 행복감 하위 요인 순서로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성취 및 자기수용, 자립성, 건강, 사회적 지위 및 인정, 대인관계, 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외모, 부모 및 친지간의 관계, 사회·정치·문화 환경, 경제력, 여가에 대한 행복감을 크게 느낄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어머니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양육행동 \ 자기효능감	인지적 영역	신체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총 점
온정·합리적 지도	.16	.14	.00	.12
반응성	.11	.17*	.09	.14
한계설정	.10	.10	-.03	.07
적극적 참여	.33**	.33**	.14	.31**
총 점	.21*	.22**	.05	.19*

\* $p<.05$ , \*\* $p<.01$

표 11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19, p<.05$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총점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영역의 자기효능감( $r=.22, p<.01$ )과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 $r=.21, p<.05$ )의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 가운데 적극적 참여 양육행동만이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31, p<.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 참여의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어머니의 자녀에게서 높은 자기효능감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 3.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유아 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 행복감 및 양육행동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수	$B$	$\beta$	$t$
행복감	.45	.50	3.78***
양육행동	-.04	-.03	-.334
상수=34.18	$F= 43.67^{***}$	$R^2= .25$	

\*\*\* $p<.001$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다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행복감 요인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해 정적 영향( $\beta=.50, p<.001$ )을 미치고 있으며,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행복감의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 $F=43.67$ ,  $p<.001$ ).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행복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데 더 의미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만 4-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경향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보통 이상의 행복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자립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바른 성장’, ‘건강’, ‘부모 및 친지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사랑’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사회·정치·문화·환경’은 하위요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여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정도가 높고, 자녀가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부모님과 일가 친척간에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배우자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어서 비교적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관계에 관련된 모든 하위요인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현재 가

족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문제, 교육, 치안, 문화예술 등의 전반적 환경, 그리고 현재 자신의 문화생활과 스포츠나 레저 생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온정·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의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자녀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들 또한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연구대상 유아들은 스스로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매우 높은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대상 유아들이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역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활동을 잘 수행해낼 수 있다고 자신 스스로를 믿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첫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해당되는 양육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적상관이 있으며 부정적 양육행동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박응임, 1995; 김명희, 1998; 김선영, 2009; 김현미, 2004; 김현미, 2006; 박영진, 2004;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유우영 외, 1998; 이현주,

1999; 조영숙, 2008; Abidin, 1990; Belsky, 1984)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에 해당되는 행복감은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어머니의 행복감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복감은 반응성을 제외한 적극적 참여, 한계설정, 온정·합리적 지도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행복감은 적극적 참여의 양육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적극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온정적이며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어머니의 행복감 하위 요인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립성에 대한 행복감으로부터 외모, 부모 및 친지간의 관계, 대인관계, 배우자와의 사랑, 성취 및 자기수용, 건강에 대한 행복감 하위 요인의 순서로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배우자와의 사랑’은 ‘결혼만족도’와 유사한 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혜영, 1995; 노명희, 1991; 박성연; 1992, 안명은, 2007; 임희수, 1994; 전현진, 1999, 최기원, 2004)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첫째, 어머니의 행복감 총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간에는 어머니의 행

복감이 인지적 영역, 신체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의 순으로 자기효능감 요인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들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행복감 하위 요인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어머니의 성취 및 자기수용과 자립성에 대한 행복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낄수록,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클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 가운데 이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견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행복감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안명섭, 1990; 김영희, 1995; 김영옥, 1996; 김도란, 2008; 권영주, 2008; 이옥경, 2008; 김민정, 2009; 김민지, 2010)에서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하위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신체적 영역의 자기효능감 요인과 가장 높

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 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신체적 영역 및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의 양육행동 하위요인만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유아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 다른 양육행동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공인숙, 1989; 김순옥, 2008; 김민정, 2003; 노순점, 2005; 노호은, 2001; 문혁준, 1999; 박기종, 2000; 진은영, 2001; 홍현숙, 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수용적이고, 반응적이며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 주어야 하며, 특히 유아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육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5)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복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앞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 부분에서,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모두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

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r=.50, p<.01$ )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 $r=.19, p<.05$ )보다 높은 상관의 정도와 유의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는 행복감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다회귀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는 행복감이었다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행복감이 양육행동보다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비교적 높은 행복감과 양육행동 점수를 갖고 있으며, 유아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어머니의 행복감 수준과 양육행동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높은 행복감 수준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가운데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행복감인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은 모두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상대적 영향은 양육행동보다 행복감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효능감 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하였듯이 행복감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이며 학습을 통해 증진이 가능한 기술이다. 그러므로 학습이 가능한 행복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스스로 건강한 정서를 통해 행복감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을 포함하는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몇 가지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표집이 서울시 K구와 경기도 Y시 지역의 8개 어린이집 135명의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유아와 어머니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 전국단위의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 지역 등이 골고루 표집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용 질문지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어머니의 실질적인 행복감이나 양육행동을 반영했다기보다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복감과 양육행동을 내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어머니의 실제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의 방법 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자기효능감 측정은 유아와 일대일의 면접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유아들 또한 자신들이 실제 갖고 있는 자기효능감이란 보다 이상적인 답변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느끼는 자기효능감의 특성상 이를 제 3자의 관찰을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만큼 차후 유아들의 자기효능감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감과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교사 변인에 의한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 고성혜 (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공인숙 (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가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수정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영주 (2008).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연구: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준희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구: 유아의 성과 관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미 (2006).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학습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성 (1985). **인지적 행동수정**. 서울: 교육과학사.
- 김도란 (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도란, 김정원 (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과의 관계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 8(2), 415-442.
- 김명희 (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 (2009). 어머니 행복감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지 (2010). 가족응집성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녀평가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영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 김순옥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숙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 (1996).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 (1995). 부모의 행복도 수준과 자녀의 인격장애와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공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김유미 (2010). 어머니의 행복감과 영아의 사회· 정서 능력 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 (1974). **한국 가족의 심리: 가족관계 및 집단 성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재희, 박경란 (1998).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5, 295-319.
- 김혜영 (1995).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화정 (2009). 동화를 통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미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노명희 (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순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호은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현심, 김지신 (1997). 사회적 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4(4), 137-153.
- 문혁준 (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97-107.
- 박기중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서영 (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연 (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성연 (199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능력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사회과학논집**, 61(2),

305-329.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34(4), 203-215.
- 박성연, 전현진 (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20(3), 153-169.
- 박성연, Kenneth H. R. (2008). 걸음마기 아동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09-124.
- 박숙경 (2002). '행복을 끌어오는 집단상담'이 대학생들의 행복에 대한 자각, 행복한 사람들의 특성, 인간관계, 내적통제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6-69.
- 박영금 (1978). 결혼생활의 행복도가 자녀의 성격형성이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진 (200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양육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희 (2008). 초등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6(1), 113-131.
- 서동미 (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 논문.
- 손승희 (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  
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근화 (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에 미  
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일식 (2010). 웃음프로그램이 부부의 주관적 행복감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태창 (1985).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특  
별시의 가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명섭 (1990). 부모의 행복도수준과 자녀의 정서적 행동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명은 (2007).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지영 (2001). 2, 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문현 (1983).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  
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정선 (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  
의 관계. **행동과학연구노트**, 11(1).
- 오지연 (2010). 유아의 개인적 특성 및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교사-유아  
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희정 (1992).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10(1). 15-25.

우희정 (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수남 (1980). 어머니의 직업유무 및 가정환경과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우영, 이숙 (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양육스트레스원, 사회적지지,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유영주 (1981).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윤병두 (199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윤은미 (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민 (2010). 유아행복교육의 가능성 탐색 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8(1), 165-181.

이동영 (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영 (2010).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자 (2008). 늦부모와 일반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역할만족도,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숙, 우희정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이옥경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행복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인

-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진선 (2006).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희 (1986).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와 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영 (1985).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 (199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 (2009). 체력증진 신체활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희수 (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병근 (2010, 11, 17). 국민 행복은 GDP순이 아니잖아요. 인터넷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에서 2010, 11, 21 인출.
- 전인옥 (1996). 교사의 교육신념과 자아효능감이 유아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방송통신 대학교 논문집**, 22, 493-528.
- 전현진 (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향미 (200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문자, 신숙재 (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정윤선 (1993).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행복·불행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 정은선 (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  
인성과 완벽주의의 매개역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조영숙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과의 관련성탐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은영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정상경험과의 관계. 한국교  
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  
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2), 193-216.
- 추미란 (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배경변인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기원 (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과의 관계. 수  
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향 (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정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유아교육학회 (1996). **유아교육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한중혜 (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련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지현 (2003).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  
착 유형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미영 (1992). 취업모와 일반모의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미래전망  
에 관한 연구: 인천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경철 (1991). Bandura의 자기효능감 발달이론과 자주성 함양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한국교원**, 18, 67-84.

- 홍연란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령기 아동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5(4), 392-400.
- 홍현숙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107-112.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Argyle, M. (2005). 행복심리학[*The psychology of happiness*]. (김동기·김은미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 1987 출판).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서울: 교육과학사.
- Belsky, J. & Isabella, R. A. (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Brody G. F. (1968).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stated maternal child rearing practice and in observed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4), 656-660.
- Bua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Pick (Ed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3-46.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ruse, S. J., Clark, S. G., & Pease, D. (1978). *Iowa parent behavior*

- inventory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3-43.
- Diener, E., Gohm, C., Suh, E. & Oishi, S. (2000). Similarity of the relations between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4), 419-436.
-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3), 276-302.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In A. D. Paul and W. R. Melvin(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witz*,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Emmons, R. A. (1992). Abstract versus concrete goals: Personal striving level, physical il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292-300.
- Engfer, B. (1988). The interrelatedness of marriage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R. A. 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pp. 104-11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 7, 117-140.
- Fishbein, M., & Ajzen, I. (1975). *Bilief,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Heady, B. W., & Wearing, A. J. (1992). *Understanding Happiness: A*

- Theory of Subjective Well-being*. Melbourne: Longman Cheshire.
- Hoggard, L. (2005). 영국 BBC다큐멘터리 행복: 행복 전문가 6인이 밝히는 행복의 심리학[*How to be happy*]. (이경아 역). 서울: 예담.
- Juang, L. P., & Silbereisen, R. K. (2002).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efficacy beliefs on psychological responses to social chang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1*(2), 1-19.
- Kagan, J. (1971).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Luster, Y.,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29*, 301-311.
- Luster, T., & Okagaki, L. (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4), 347-413.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unk, D. H. (1981). Modeling and attributional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93-105.
- Seligman, M. E. P. (1999). Teaching positive psychology. *The National*

- Honor Society in Psychology*, 4(1), 16-17.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eligman, M. E. P.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P. (2004). Can happiness be taugh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 133(2), 80-87.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ment of the quality of the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nyder, C. R., & Lopez, S. J. (2007).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tific and practical explorations of human strength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Veenhove, R. (1984). *Conditions of happiness*. New York: Springer-Verlag.
- Watson, G. A. (1957). Some personality difference in children related to strict or permissive parental discipline. *Journal of Psychology*, 44, 227-249.
-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4), 294-306.
- Wood, R. E., & Locke, E. A. (1987).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and grade goals to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7(4), 1013-1024.

## ABSTRACT

### The Relationships among the Happiness of Mothers, Their Parenting Behavior and the Self Efficacy of Their Young Children

**Ko, Ye Ji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and self-efficacy of young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5 children aged 4~5 attending 8 pre-schools in Seoul and Kyounggi-province and their mothers. The instrument used for mother's happiness was Korean Adult Happiness Index developed by Myoung-so Kim, Hye-won Kim, Kyoung-ho Cha, Ji-young Lim, and Young-seok Han(2003). For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his study used Parent Behavior Inventory(Mother form) modified by Seung-hee Son(2002). The instrument used for Children's Self-efficacy was modified Young Children's Self-efficacy Inventory by Mi-hyang Choi(200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2.0. Program.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o investigat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ing instruments, Cronbach's  $\alpha$  was calculated. The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examin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ask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have relatively high level of happiness and parenting behavior. And their children have a very high level of self-efficacy.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happines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and self-efficacy of young children. between levels of mother's happiness and their children's self-efficacy.

Third, it was the mother's happiness that the variable of mothers affects on their children's self-efficacy. Thus, the mother's happiness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variable to predict their children's self-efficacy.

To summarize, this study concluded that both mothers' happiness and parenting behaviors affected their children's self-efficacy. And the greater influential factor on children's self-efficacy was the mothers' happiness than their parenting behaviors.

## 부 록

<부록 1> 어머니용 질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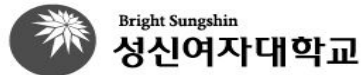
<1-1> 어머니용 행복감 측정도구

<1-2> 어머니용 양육행동 측정도구

<부록 2> 유아용 자기효능감 검사도구

<부록 1> 어머니용 질문지

##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행동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 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은 맞는 답도 틀리는 답도 없으며, 어머니의 평소 생각과 행동을 솔직하게 내용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답해 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답변 하나하나가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자녀 편으로 되돌려 보내주십시오>

2010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 석사과정 고 예 진  
지도교수 권 정 윤

◆ 아래의 사항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배경정보입니다.  
빈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나이 : (            ) 세

2. 학력

	학력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	
3	대학교 졸	
4	대학원 이상	

3. 취업여부

	취업여부	
1	맞벌이	
2	전업주부	

<부록 1-1> 어머니용 행복감 측정도구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갖고 싶은 것을 살 만큼의 경제력이 있다.	1	2	3	4
2	나는 여가생활을 즐길 만큼의 경제력이 있다.	1	2	3	4
3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경제력을 갖추었다.	1	2	3	4
4	나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1	2	3	4
5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1	2	3	4
6	나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1	2	3	4
7	나는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는 편이다.	1	2	3	4
8	나는 스포츠 및 레저생활을 자주 즐긴다.	1	2	3	4
9	나는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자주 간다.	1	2	3	4
10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11	나는(혹은 배우자가)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1	2	3	4
12	내가(혹은 배우자가) 하고 있는 일이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1	2	3	4
13	나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1	2	3	4
14	나 자신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2	3	4
15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	1	2	3	4
17	나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18	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잘 대처해나갈 수 있다.	1	2	3	4
19	나는 우리 사회의 직장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0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교육환경을 신뢰할 수 있다.	1	2	3	4
21	나는 우리 사회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22	신앙과 종교는 나의 삶에서 중요하다.	1	2	3	4
23	나는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1	2	3	4
24	종교는 내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다.	1	2	3	4
25	나는 종종 남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	1	2	3	4
26	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 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	1	2	3	4
27	내 소득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1	2	3	4
28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	1	2	3	4
29	내 자녀들은 서로 우애가 돈독하다.	1	2	3	4
30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	1	2	3	4
31	나는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낸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2	나는 부모님께 인정받는다	1	2	3	4
33	나는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1	2	3	4
34	우리 부부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준다	1	2	3	4
35	나는 배우자와 대화를 자주한다.	1	2	3	4
36	내 배우자는 가정 일을 잘 도와준다.	1	2	3	4
37	나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많이 있다.	1	2	3	4
38	나는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나 이웃이 여러 명 있다.	1	2	3	4
39	나는 고민을 들어 줄 친구나 이웃이 많지 않다.	1	2	3	4
40	나는 균형 잡힌 외모를 갖고 있다.	1	2	3	4
41	나는 남들이 호감을 갖는 외모를 갖고 있다.	1	2	3	4
42	나는 다양한 호감을 갖는 외모를 갖고 있다.	1	2	3	4
43	나는 특별히 욕심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산다.	1	2	3	4
44	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1	2	3	4
45	나는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쉽게 만족하는 편이다.	1	2	3	4
46	나는 건강에 대해 자신이 없다.	1	2	3	4
47	나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	1	2	3	4
48	나는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	1	2	3	4

<부록 1-2> 어머니용 양육행동 측정도구

번호	문항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	자녀가 아플 때면 특별히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준다.	1	2	3	4
2	자녀가 기분이 나빠 보이면 즉시 자녀에게 가본다.	1	2	3	4
3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이 볼만한 책이나 노래와 같은 것들을 찾아본다.	1	2	3	4
4	자녀에게 아이의 행동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설명해 준다.	1	2	3	4
5	자녀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	1	2	3	4
6	춡거나 비오는 날에는 집안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본다.	1	2	3	4
7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을 때에도 자녀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행동을 한다.	1	2	3	4
8	자녀에게 일상적인 일 (예: 옷정리, 밥먹기)은 스스로 하도록 시킨다.	1	2	3	4
9	자녀가 정해진 취침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도록 한다.	1	2	3	4
10	화낼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에 자녀가 화를 내었을 때도 자녀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본다.	1	2	3	4

번호	문항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11	자녀가 나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면 공손하게 말하도록 한다.	1	2	3	4
12	자녀와 친구가 놀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는다.	1	2	3	4
13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해준다.	1	2	3	4
14	자녀에게 뽀뽀하거나 껴안는 것 같은 신체적 애정표현을 자주한다.	1	2	3	4
15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가르쳐준다.	1	2	3	4
16	자녀가 정해진 시간에만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1	2	3	4
17	자녀가 아플 때에는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고 자녀와 함께 있다.	1	2	3	4
18	자녀가 자전거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보면 자녀에게 즉시 달려간다.	1	2	3	4
19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1	2	3	4
20	자녀가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곧 달려간다.	1	2	3	4

번호	문항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21	자녀가 아플 때는 자녀와 같이 지내려고 특별히 신경을 쓴다.	1	2	3	4
22	자녀가 있을 때에도 남편과 어느 정도의 애정표현은 한다.	1	2	3	4
23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2	3	4
24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 (예:시장, 은행 등) 자녀를 데리고 나간다.	1	2	3	4
25	자녀가 한 일이 대견스러워 칭찬할 때가 많다.	1	2	3	4
26	자녀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아이들과 함께 놀게 한다.	1	2	3	4
27	자녀에게 언어적인 애정표현 (예:사랑한다. 착하다)을 자주 한다.	1	2	3	4
28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주고 반드시 지키게 한다.	1	2	3	4
29	자녀와 함께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예:그림 그리기, 자동차 놀이)를 자주한다.	1	2	3	4
30	자녀에게 자랑스럽다는 말을 많이 한다.	1	2	3	4
31	자녀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나도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해준다.	1	2	3	4

<부록 2> 유아용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번호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2	나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선생님이 어려운 질문을 하실 때 잘 알아듣기 위해 열심히 들을 수 있다.				
3	나는 나이 어린 동생에게 양보하면서 잘 데리고 놀 수 있다.				
4	나는 싸우고 있는 친구들을 사이좋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5	나는 건강해지려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				
6	나는 선생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어떤 것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7	나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다.				
8	나는 새로운 운동을 잘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9	나는 친구에게 생일초대를 받을 만큼 인기가 좋다.				
10	나는 세운 놀이계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				
11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다.				
12	나는 누구하고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13	나는 오래 전에 읽은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번호	문항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4	나는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15	나는 어떤 일을 오랫동안 잘 참고 계속할 수 있다.				
16	나는 유치원에 새로 들어온 친구에게 말을 먼저 걸어서 친구와 잘 사귄 수 있다.				
17	나는 무거운 것을 들고 멀리 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다.				
18	나는 다리가 튼튼해서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다.				
19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착한 마음이 있다.				
20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울동을 잘 따라 할 수 있다.				
21	나는 어려워 보이는 일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22	나는 팔 힘이 세서 철봉에 매달리기를 오래할 수 있다.				
23	나는 유치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잘 참을 수 있다.				
24	나는 기분 나쁜 일에도 잘 참을 만큼 마음이 넓다.				
25	나는 미술시간에 작품 만들기를 잘 할 수 있다.				